

藝術 소의 극복을 위한 入試制 모색

金 采 賢

(西原大 舞踊學科)

1

우리나라 성인들의 문화 행사 참여도에 관한 갤럽조사연구소의 조사 수치(조사 규모: 전국 1천 5백 명, 조사 연도: '90년)에서 1년 동안 영화를 단 1회라도 관람한 적이 있는 사람은 37.3%로 나타났고, 그의 연극 공연 9.5%, 음악회 8.2%, 전람회 11.3%, 박물관 관람 14.6%, 출판발표회 2.1%의 순이었다. 同 연구소에서 '87년도에 실시한 조사와 비교해 보면 3년 동안 문화 행사 참여도가 전체적으로 2할 가량 늘었으며, 특히 '87년도에는 0%로 전혀 반응이 없었던 춤 분야가 새로운 문화 체험 영역으로 추가되는 등 긍정적인 사실도 밝혀졌다. 이 통계치에 나타난 각 분야의 반응을 모두 합산하면 80% 가량 되는데, 여기에는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대해 반응한 경우도 포함될 것이다. 이를 감안하면, 연간 1회 이상 문화 행사에 참여하는 인구는 우리나라 성인 가운데 8할에 훨씬 못미칠 것으로 推定된다.

설령 이 수치를 단순히 산술평균적으로 읽어 우리 성인들 가운데 8할이라는 대다수의 국민이 연간 1회씩 문화 행사에 참여한다고 해석해도, “참여 행위의 질적인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수준급의 참여 행위일까?”하는 의문은 누구라도 쉽게 가질 수 있다. 우리나라 예술의 현 상황은

이처럼 위와 같은 의문을 ‘누구라도 쉽게’ 느낄 수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즉, 솔직히 말해 문화 향수층이 두텁지 못한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文化 享受 대상물마저 미약한 것이 현 상황이다. 예술의 사회적 疏外가 드셀 것과는 대조적으로 일반인의 예술에 대한 존경심과 선호도는 결코 낮지 않은 듯하고, 더구나 유·무형의 여건만 주어진다면 문화 행사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일반인도 적지 않을 듯싶다.

문화 예술 혹은 예술 행위는 創作으로 완결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일 테지만, 사실 그것은 향수자에 의해 수용되고 음미되어 의미있는 대상물이 될 때에야 비로소 완결된다. 그렇다면 향수자를 갖지 못하는 예술은 불행한 존재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가치를 누리지 못하는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예술가의 행위는 이미 사회적 행위의 一環으로 예술의 역사성은 향수자와 무관하게 성립될 수 없다. 예술의 사회적 소외는 사회로부터 예술이 외면당하는 경우와 예술로부터 사회가 외면당하는 경우의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주변에서 이 두 경우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누구라도 쉽게’ 의문을 품을 상황이 加重되었다고 본다.

그런데 이와 결부해서 극히 제한된 예외를 논

외로 하면, 현실적으로 한국에서 예술 전문가는 大學에서 배출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학이 예술가 배출의 메카였다는 점에서 우리 예술이 처한 오늘의 상황에 대해 대학은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근자에 대학 예능계 실기 입시 부정이 지탄을 받고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드높았던 데에는 청결한 사회에 대한 소망 뿐만 아니라 대학이 우리 예술계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으로 보아 大學 藝術教育의 개혁 촉구 의지마저 내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해방 이후 최대의 敎育 非理라는 오명 속에서도 그나마 해방 이후 대학 예술교육이 최대의 관심사로 부각된 계기는 이번의 소위 예능계 실기 입시 부정이 아닐까 한다. 우리 예술의 진로를 좌우하였고 앞으로 큰 변화가 없으면 더욱 그러리라 예상되는 대학 예술교육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러한 관심은 진작 기울여졌어야 옳았을 터인데, 공교롭게도 입시 부정이라는 反예술적 사건을 통해 그러한 관심이 수동적으로 표명된 데서 우리는 그러한 관심이 진정 대학 예술교육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사건의 본질을 도리어 회색시키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조차 갖게 된다. 분명 대학 예술교육의 장래를 걱정하는 견해가 첨가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대학 예술교육의 장래와는 무관하게 입시 절차상 몇몇 과정의 수술로 수험생들 간의 공정한 경쟁 원칙을 확립하기를 촉구하는 여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러나 실기 입시는 대학 예술교육 대상자를 가려내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대학 예술교육의 개시부에 해당한다. 이것은 대학 예술교육은 이미 실기 입시에서 시작되고 있으며, 대학 예술교육이 內容이라면 실기 입시의 방법은 이 내용에 대한 形式의 일부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대학 예술교육의 속한 문제점을 유보한 채 기존 실기 방법을 약간 손질하는 방향으로 이른바 예능계 실기 입시 부정을 종결지우려 한다면, 이는 확실히 단건의 소치 또는 책임 회피를 위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난 2월 하순에 교육부가 시급히 마련한 예능계 실기고사 개선안은 심사위원들 간의 담합과 부정의 소지를 줄이는 데 치중한 것인 데다가, 여기에 장기 계획으로 대학 예술교육의 이론 중심화와 전문 실기학교 신설 방안 강구를 덧붙이고 있지만 근본적 개선안으로서는 미흡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여전히 금전에 의한 합격이 조장될 가능성을 남겨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면 과제인 창의성 반영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이전의 방식과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방안이다.

다시 말해 내년부터 실시될 새 대입 실기 입시 제도는 他校 심사위원 선임 금지, 교수의 레슨 활동 금지 등 심사위원 선에서의 비리를 예방하는 데 중점이 두어진 것 이외에는 별 개선점도 발견되지 않으며, 더구나 이른바 공동관리제에서 자율관리제로 환원된 제도이다. 1980년도에 궁여지책으로 공동관리제가 채택된 이유는 당시에도 만성적이었던 입시 부조리 때문이었는데, 당시의 자율관리제를 약간 손질한 이번의 자율관리제가 우려를 자아내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하겠다. 덧붙여 교육부가 공평최도 거치지 않은 채 독자적으로 여론을 수렴해서 새 실기 제도를 강구한 것은 교육 행정 일정상 이해될 바도 없지 않다 하겠으나, 아무튼 졸속 처리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터다. 즉, 누누이 강조한 대로 교육 주무 부서로서 대학 예술교육의 정상화를 유도해 내려는 의지가 이번 개선안에서 전혀 보이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는 예술교육의 특성을 입시 제도에서 살리기보다는 부정방지라는 단순한 일반 교육 행정 차원에서 대학 실기 입시 제도를 개선하려는 단견이 노출된 셈이다.

서두에 예시한 예술의 사회적 소외 현상에 대해서는 대학 예술교육에도 책임이 있다. 예술 향수자로서 일반인들의 부족한 안목만 나무랄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들이 공감할 만한 예술 작품이 해방 이후 지금까지 무려 50년 동안 우리의 대학 예술교육을 받은 사람들 손에서 얼마나 산출되었는지 자문해 보면 쉽사리 반증되리라 본다. 우리 사회와 생활 어디에서건 예술은 한 구석에 방치되어 마침내 예술교육마저 무기력해지

는 모순이 심화되었다. 이러한 모순은 소위 예능계 실기 입시 부정에 집약된 편이다. 예컨대 재주가 없어도 입학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그다지 修鍊하지 않아도 졸업을 보장받는 예술 전공자가 불명예스럽게도 예술계의 주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말하자면 대학 예능계의 안이한 修學 風土가 입학 과정에도 영향을 미쳐 작게는 입시 비리를 조장한 데 그치지 않고 급기야 우리 예술의 향방까지 모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대학 예술교육의 내용이 부실함으로써 실기 입시라는 형식이 형식에 그치는 폐단도 있었다. 바꿔 말해 대학 예술교육이 예술의 소외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대학 예술교육의 개시부에 해당하는 실기 입시 역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므로 예능계 실기 입시 부정은 단순히 수험생들 간의, 부정한 심사위원과 선량한 수험생 간의 문제 이상으로 사실상 우리나라 예술의 향방과 직결된 사건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십 년 동안 시행된 실기 능력 측정의 입시 제도는 '80년대 이전의 자율관리제'→'80년대의 공동관리제'→'92학년도부터 실시될 자율관리제처럼 공동관리제와 자율관리제가 번갈아 시행되었을 뿐 능력 측정에서는 예전과 별 차이가 없다. 예컨대 단 하루 안에, 그것도 짧게는 2~3분 내에(미술 실기는 좀 길게 몇 시간 내에) 다 해치워야 하는 실기 시험 방식으로는 수험생의 예술적 소양을 측정하기에는 분명 무리이며, 시험 과목도 대개 특정 분야의 전공에 국한되어 수험생이 복합적인 예술 현상에 대한 先理解를 결여해도 무방하다. 他예술 분야에 대한 盲目 현상은 모르긴 해도 대학 진학 이후에도 계속 이어져 자기 전공만 숙지하는 좁은 시야의 예술인이 양산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물론 다른 예술 분야에 대한 素養은 대학 진학 이후에 보충될 가능성이 있겠고, 또 이는 대학 예술교육 교과 조정으로 해결될 소지도 있겠지만, 생각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예술인이 오늘날 세계가 요구하는 복합 매체형의 예술에 순발력있게 대처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다시 말해 복합 매체뿐만 아니라 예술에 대한 포괄적 체험과 관심이 청소년기 때부터 체질화되도록 입시

제도로써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간의 예능계 입시 제도를 성공작 또는 실패작 둘 가운데 하나로써 그 성과를 지적해 보라 한다면, 총괄적으로 말해 실패작에 가깝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일 듯싶다. 예능계 입시 제도의 모순점을 제도 그 자체의 책임으로만 돌리기에는 예술과 예능계 입시를 둘러싼 주변 여건의 낙후성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 한계와 위험을 뿌리칠 수 있는 힘은 주어져 있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동안 과연 그러한 힘을 예술 스스로 얼마나 행사하였는지 반문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간의 예능계 입시 제도가 실패하였다는 지적의 근거를 제시하자면, 무엇보다도 예능계 입시가 개시부를 구성하는 대학 예술교육이 수십 년간 실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감있고 공감을 주는 작품이 예술가나 예술가 집단에서 배출되지 않았던 데 대한 책임이 예능계 입시 자체에서도 찾아진다. 그리고 그간의 예능계 입시 제도는 사실상 암기식의 模倣型 기능 측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예술 창작의 중핵 요소인 창의력 측정에서는 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미 예술에 입문할 때부터 예술 지망생들은 예술 流派와 독창성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 놓이지 않을 수 없고, 이러한 맹점은 대학 재학중에도 줄곧 이어지고 심할 경우 평생을 간다고 생각된다. 새삼스럽게 예술 기량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는 없을 것이고, 오히려 예술 기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면 예술가는 예술 기량을 통해 진술(=표현)한다는 말의 의미를 새삼 숙고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예술적 창의력은 기량을 거쳐 나오지만, 기량에 대한 自己意識이 없는 예술은 기량의 유희에 불과하다. 예술인은 많아도 예술가는 드문 풍토는 곧 기량을 한 차원 끌어 올릴 능력이 예술계 전반에서 개발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창의력 개발이 기량 연습으로만 해결될 성질은 아니므로 기량에 대한 사고력을 묻는 과정(아를 이론 전공의 전유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이 입시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학 예능계 입시 제도의 개선안은 공

동관리제와 자율관리제, 이 둘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방안의 문제가 아니다. 이번의 예능계 입시 비리가 공동관리제를 적용하는 일부 대학에서 저질러졌다고 해서 자율관리제를 적용하는 다른 대학의 입시가 온전한 것은 아니다. 일부 대학의 자율관리제 입시에서도 그에 못지 않은 비리가 蓋然性있게 존재한다는 보도도 나왔고, 이와 아울러 공동관리제든 자율관리제든 관리하는 주체만 조금 다를 뿐 수험생을 측정하는 실제 방법과 내용에서는 다를 바 없다. 이와 같이 개선안이 공동관리제로부터의 탈피, 즉 약간의 보완 사항을 갖춘 자율관리제로의 復歸로 종결지워진 것은 不正이 상징하는 비윤리성의 적절에 중점을 둔 나머지 그러한 부정이 배양되도록 한 대학 예술교육의 취약점을 간과한 때문으로 보인다. 물론 교육 행정의 입장에서 고려할 점도 있겠지만, 아무튼 교육부의 이번 개선안이 예능계 입시 부정을 전화위부의 계기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 덧붙여 이 개선안에는 각 대학이 준수해야 할 규제 조항도 많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서의 자율관리제라고 하기에는 무리이다.

3

대학 예능계 입시에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대학 예술교육의 목표에서 찾아져야 할 것이다. 단적으로 指向點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대학 예술교육의 위상은 입시도 불투명하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대학 예술교육은 교양적 기능인의 양성 아니면 전문 예술가 양성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 當然한 목표를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기능인에게는 熟練性, 예술가에게는 숙련성이 겸비된 創意力이 요구되므로 목표에 따라 시험 방식은 달라진다. 그렇지만 목표는 예술가 양성에 두고 시험 방식은 숙련성 측정에 중점이 주어져 있다면, 생각컨대 목표와 실체가 서로 동떨어져 대학 예술교육은 걸들기 마련이다. 예술계가 예술가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서 예술가와 기능인이 받는 교육은 전공 과정상 차이가 나야 한다. 그러나 기능인에 적합한 시험을 치른 사

람이 예술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한다는 것은 모순으로 보인다.

더욱이 시대 흐름은 이미 21 세기를 눈앞에 두고 있고 統一 열기가 활성화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태껏 국내에서 통용되어 온 페터다임의 藝術觀에 일대 전환이 있어야 할 것임을 시사한다. 장르의 고립을 탈피하는 복합 매체 형태의 예술에 대한 교육 및 복합 예술 관련 교과 요목 개설 등 보다 유연한 예술교육 전략이 요구된다. 그리고 예술을 향수할 권리, 즉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文化權을 살려나가는 일 또한 근자에 이르러 예술계를 향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 과제인 바, 이를 예술 촉매 운동의 일환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예술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즉, 예술계 안팎의 변화와 예술의 生活化에 대응하려면 예술교육의 다양성이 시도되어야 하므로 예능계 입시도 다양하게 세분화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입시 비리가 드러나면서 대학 예술 분야에서 이른 전공 과정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부각된 바 있다. 이는 실기가 주도한 결과이겠지만, 좀 더 면밀히 보면 실기에서 맹목성이 강하였던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예술에서의 理論은 굳이 해당 분야의 역사라든가 미학만을 지칭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실기를 과학적으로 개념화하는 것도 이론의 범주에 들 것이다. 다시 말해 실기의 실기다움을 위한 이론적 방법(method)까지 이론에 포함되어야 한다. 어떤 형태의 이론이든 이론이 잘 개발되지 않아 대학 예술교육에서 이론이 열세에 처하게 되었음은 말할 나위도 없고 급기야는 창작의 발전도 저하되기에 이르렀다고 본다. 참고로 유념할 것은 실기가 감성적 영역을 주축으로 하는 데 비해 이론은 개념적 영역까지 포괄하는데, 이 두 영역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벽이 가로 막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념적 판단력이 하루 아침에 함양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흔히 실기 전공자 가운데 이론 전공자를 선발·육성한다는 구상이 타당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 이론 전공 학과를 따로 두는 방법 아니면 예술 이론 전공 과정을 기존의 예능계 학과에 별도로 두는 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령 예술 이론 전공 학과를 둔다면 무용·음악·미술 등 여러 장르의 이론 분야를 망라해서 하나의 학과로 묶어 예술학과 혹은 미학과 등의 명칭을 부여하여 무용(이론) 전공, 음악(이론) 전공 등의 과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각 장르마다 이론 전공 학과를 두어 지금처럼 ‘~과’가 아니라 ‘~학과’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실기 전공 학과에는 ‘~과’라는 명칭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존의 예능계 학과에 이론 전공자를 둔다면 선발 인원은 국내 예술계의 동향으로 미루어 전체 정원의 2할 정도가 적정 수준일 듯싶다. 독립된 이론 학과가 신설되면 이론 전공 과정을 신설하던 그 수험생에게 해당 장르의 실기 소양을 얼마나 물을 것인지의 문제가 제기될 것인데, 현재 弘益大의 예술학과는 본고사 전체 배점의 5% 정도를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이번에 이론 과정에 못지 않게 그 필요성이 강조된 것은 專門實技養成院(공세르바트와)이다. 학문의 전당이라는 대학의 성격과 차이가 나는 실기 계통 학과가 대학에 있음으로써 예술의 담보 상태를 유발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전문실기 양성원의 설치 제안은 오래 전부터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으며, 또 그 실현 가능성도 커가고 있다. 예술 초기 교육 실현, 급조된 예술 지망생 방지, 실기의 전문화, 이를 통한 대학 예술 이론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전문실기 양성원의 이점은 명백하다. 그러나 입시와 결부해 볼 때 지망생 선발 절차에서 면밀한 장치를 갖지 못하면 전문실기양성원이 이번과 같은 비리로부터 온전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현재의 대학 예능계 학과들이 현실적으로는 실기 전문가, 이론가, 창작가를 양성한다는 복합적 목표를 안고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어정쩡한 입시 방법을 택하게 되는 속사정도 있다. 그렇다면 실기 인력만 전문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의 전문실기양성원은 실기 배점을 매우 높게 잡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상에서 언급한 방안들은 그동안의 예능계 입시 관행에 비추어 퍼 장기간적 계획을 요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부분들을 취합해서 현재의 입시 방식과 개별 학과의 전공 배치에 탄력적으로 적

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전문실기양성원이 설치되거나 대학 내에 실기 전공 학과와 이론 전공 학과가 나란히 공존할 경우 입시 방식이 현재와는 전혀 달라질 공산이 크다.

4

미확정적 논의는 여기서 그치고, 끝으로 현재의 예능계 학과들이 내년에도 이전처럼 대학에 소속되어 입시를 치를 예정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필자가 다른 지면에서 ‘大學入學 實技豫備考査制’라는 이름 하에 밝혔던 나름의 개선안이 여기서도 검토되길 기대한다. 이른바 入試非理는 부적격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심사위원의 예술적·교육적 판단을 금전으로 매수하는 현상으로 요약된다. 그리고 현행 입시 방식으로는 수험생의 창의력과 대학별 특성을 살리기 어렵다. 대학 입학 실기 예비고사제는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데, 수험생들이 두 번의 시험(대학 입학 실기 예비고사제와 대학별 예능계 본시험 실기고사)을 치러야 하는 번거로움도 예상된다. 그 구체적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다.

① 교육부 관리 하에 매년 1학기 중간쯤인 5월 중순경에 그해의 대학 입학 실기 예비고사에 응시할 수험생의 지원서를 접수 마감한다. 이때 접수하지 않은 학생이나 이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점수를 받은 응시자(아래 ⑦항 참조)는 그해 예능계 고사 응시 자격을 갖지 못하나, 다른 계열에는 지원할 수 있다. 이 접수 일정은 다소 늦어져도 무방할 듯싶다.

② 접수분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예능계 각 분야의 受驗 地區를 나누고, 접수 마감 한 달 가량 이내에 응시자들에게 해당 수험 지구를 통보한다.

③ 교육부 관리 하에 그해의 대학 입학 실기 예비고사를 2학기 직후에 실시한다. 이를 2학기 직후에 실시해야 하는 이유는 여름 방학 때면 해외 연수나 각 개인들의 일정이 빈번해 특히 심사위원 확보에서 차질을 빚기가 쉽기 때문이다.

④ 수험 지구는 전국을 특별시, 직할시, 도 단위 등으로 나누고 응시자는 가급적 거주지의 수험 지구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한다. 한편, 그 이

전에 심사위원 예상자들에게 미리 본인의 심사 참여 승락을 받아두고 가급적 시험에 임박해서 심사할 수험 지구를 보안을 유지하여 통보한다. 한 지구에서 한 분야를 심사하는 심사위원 수를 가급적 많게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⑤ 시험의 배정은 대학 입학 학력고사 본고사의 20% 안팎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듯하나 예능계 분야에 따라 편차가 있을 것이다.

⑥ 시험의 내용을 무엇으로 할 것인지는 분야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측석에서 응시자의 창의력을 측정하는 내용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⑦ 시험의 합격 여부를 시험 종료 보름 가량 이내에 응시자에게 통보한다. 이 시험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평점을 받은 응시자에게는 그해 예능계 대학 응시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이 시험의 성적은 약 2년 동안 유효하도록 하되, 수험생이 원하면 그 다음 해에 다시 응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시험의 성적은 그해의 예능계 입시에 반영시킨다.

⑧ 이 시험의 성과와 예능계 本試驗(지금의 예능계 실기 입시와 유사함)에서 획득하는 성적을 합산하여 각 대학에서 응시자의 실기 입시 성적을 구성한다.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출제 관리하는 예능계 本試驗의 점수는 본고사의 5% 안팎으로 하는 것이 이상적일 듯하다. 실기 예비고사에서 창의력을 측정하였다면 본시험에서는

기본 기량을 측정하여야 할 것인데, 창의력과 기본 기량 가운데 어느 것을 실기 예비고사에서 측정할 것인지 아니면 兩 시험에서 모두 측정할 것인지도 검토 대상이다.

이 구상을 현행 제도와 간략하게 비교하면서 그 목표를 부연해 보기로 한다. 이른바 先試驗制와 後試驗制, 공동관리제와 자율관리제를 혼용한 이 방안은 우선 공동관리제만으로는 각 대학이 원하는 유형의 학생을 선발할 수 없는 단점을 상당히 해소시키 각 대학의 본시험 실기고사를 통해 그렇게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그리고 현행 자율관리제나 공동관리제나 예술 지망생이 급조되는 것에 무력한 데 비해 그래도 이 방안은 원천적으로 그러한 지망생을 상당수 탈락시킬 수 있고, 일단 대학에 붙고 보자는 심리에 따른 비리 등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수험생이 지망 대학을 정하기 훨씬 이전에 접수해서 치르는 것이므로 가령 備實이 개입할 여지도 적을 듯싶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학은 일정 수준 이상의 학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설명 대학에 수준 이하의 학생이 입학하는 경우가 있을지라도 지금처럼 학과에 따라서는 심지어 惡貨가 良貨를 내모는 현상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더 넓게 보면, 대학 예능계가 예술계에서 갖는 비중으로 미루어 전체 예술계의 자연스러운 淨化 작용도 이 방안에서 기대해 볼 수 있다.*